

지역 매아리



권익현 부안군수, 현장행정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가 평소 강조해 온 현장 행정 소통강화를 위해 지난 13일 부안읍과 주산면, 행안면을 찾아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날 현장행정에서 권 군수는 경로당을 비롯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주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권 군수는 "연말을 앞두고 각종 행사와 출장, 직무 등으로 바쁘지만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군정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손으로 적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시보건소, 임산부 대상 응급상황 대처 교육 실시

정읍시보건소가 14일 정읍시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영양 플러스'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임산부·영유아 응급상황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영양 플러스사업 일환으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응급상황에서 가족과 자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현장 응급처치 능력 향상 위주의 반복·실습으로 진행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화상 응급처치 방법, 심폐소생술 방법 등으로 실습용 마네킹을 활용해 참여자 전원이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위험한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해 사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관리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건강교육을 통해 식생활 실천과 영양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응급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 지황 명성 재현에 '온 힘'

정읍농기센터, 신제품 보급·홍보 영상 등 분주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정읍 지황 명성 재현과 함께 정읍산 지황 이미지 개발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약 2억여 원을 투입해 우수 품질·부병 중간 보급과 토양 지역 증진 등을 통한 노동력·경영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일부터 지황 영상 광고를 송출해 정읍산 지황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개발에 나섰다.

정읍은 지난 1992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황 주생산지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옹동지역 지황 재배면적은 45ha로 전국 생산량의 70% 차지했다. 이후 중국산 지황이 수입되면서 지황 생산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연작 장애 등 어려움을 겪으며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

최근 국내산 약재를 선호하는 수요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황 국산 품종 개발에 매진해 국산품종 보급에 나서고 있다. 이에 시도 정읍산 지황 명성 재현에 나선 것이다.

현재 시 지황 재배면적은 32ha, 96개 농가이다.

시는 지난 2015년에는 지리적 단체 표장을 등록했고, 토강·다강·고강 등 국내육성 신제품을 도입해 고품질 지황 재배를 위해 힘쓰고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현대인의 경육과, 공진단 등의 건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GAP 인증 등 고품질 정읍산 지황을 생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속지황은 감초만큼이나 한약에 자주 들어가는 약재이다.

속지황은 생지황을 9번 찌고, 9번 말려서 만든 한약재다. 할당 저하·혈관 확장과 수축 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

고창군·군의회·영농조합법인, 소규모 고구마 재배농가 소득창출 맞춘

고창군과 군의회, 영농조합법인이 지역의 소규모 고구마 재배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구의원장, 서재필 고창황토배기청 정고구마연합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고구마 가공산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창군내에서 소규모로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들과 이를 수매·가공하는 업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인은 고구마 가공량의 60% 이상을 소규모 재배농가의 고구마를 수매·가공해 농업인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고창군은 소규모 재배농가의 고구마가 원활히 수매돼 고구마 가공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고창군의회도 고구마 재배 농민과 행정, 수매·가공 업체의



14일 오전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구의원장, 서재필 고창황토배기청 정고구마연합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고구마 가공산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의사소통 등 제반사항을 조율한다. 앞서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 영농조합법인은 농식품부가 주관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2년까지 고구마 가공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로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고소득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업체가 상생하며 대한민국 고구마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로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고소득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업체가 상생하며 대한민국 고구마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섭 정읍시장,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정읍시 유진섭 시장이 14일 서울 농업중앙회 본부에서 개최된 '2019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시상식에서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은 농업중앙회에 주관으로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발해 시상한다.

유 시장은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농업 발전 방향을 진두지휘했다.

시는 힘을 모아 정읍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비전을 확립했다. 시실원에 스마트팜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 대체 등 변화하는 농업에 대응했으며,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육성을 통한 농산물 명품화 추진과 축산 악취 중점관리로 ECO축산 조성에 앞장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청년 농업인 유입환경 조성,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힘써왔다.

이에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 여러분께 이 상을 바치고 싶다"며 "생명 산업인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창군청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배달됐다. 보내는 사람은 '고창 주민'으로만 적혀 있었고, 고창관내 소인이 찍혀 있는 서류봉투였다.

"농민수당에 써주세요"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 응원기부천사 나타나

지난 12일 고창군청 고운기 농생명 지원과장 앞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배달됐다. 보내는 사람은 '고창주민'으로만 적혀 있었고, 고창관내 소인이 찍혀 있는 서류봉투였다.

고 과장은 우편물을 뜯어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낯익은 다발봉지가 쏟아져 나왔던 것. 총금액은 66만6000원(5만원권 133매, 1만원권 1매, 1000원권 6매)에 달했다.

돈다발과 같이 들어있던 한 장의 종이에 손글씨로 "농민수당에 사용 하여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고 과장은 농민수당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지역 농업 관련 종사자의 뜻있는 기부로 예상됐다. 앞서 고창군은 전라북도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9월 추석 전 첫 지급을 시작했다.

특히 민선 7기 고창군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군정 슬로건으로 정하면서 '농생명 식품산

업을 균형 제일 방침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여기에 농생명지원과를 전체 조직의 수석과로 하는 조직개편으로만 적혀 있었고, 신원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고창관내 소인이 찍혀 있는 서류봉투였다.

하지만, 기탁자의 바램과는 달리 농민수당은 고창군의 예산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기부금이 예산에 포함될 수 없다.

이에 고창군은 고인 끝에 고창군장 학제단에 기탁해 농생명식품산업을 공부하는 고창관내 대학생 등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기로 했다.

고창군 고운기 농생명지원과장은 "이 땅에서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을 위한 고창군의 마음에 고창의 주민이 응원하고, 격려한 것이라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농민을 위한 일, 고창군 농생명 산업을 위한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한반도 첫수도 고창민들께 익명 기부 천사의 거액 기부가 큰 다짐들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 개최

부안군은 14일 소노밸리산리조트(옛 변산대명리조트)에서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 4월 출범식에 이어 두 번째 회의로 부안군 발전을 위한 제안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30여 명의 위원들이 참여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태영 박사의 '부안 새만금 썬버리부지 내 수소연료전지 첨단밸리 조성사업' 등 7명의 위원들이 각각 부안군 발전을 위한 제안발표를 했으며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들이 제안발표에 대한 토론

을 진행했다. 군은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경제, 문화관광, 산업환경, 교육복지 등 부안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외부의견 수렴과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군 주요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풍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안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bottles of wine (Mulberry Wine, Sangju, and Sangju) and several smaller images of gift sets.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The ad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